

부활 제 5주일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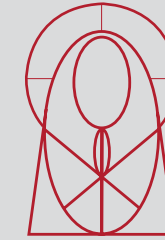
<< 성전기금 현황보고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Iris ID Systems	1,300	32	박애순	500	63	오석미	1,000	94	임소라	100
2	요셉회/대건회/야고보회	1,704	33	박재영	1,500	64	오진아		95	임영자	1,000
3	주일학교	500	34	박정훈	1,500	65	오선아	2,000	96	장문국	1,000
4	유스그룹	400	35	박정희	100	66	오현아		97	장수지	1,000
5	반석회	2,000	36	박화성	1,000	67	오용운	2,000	98	장종현	400
6	이스트브론스웍 구역	1,167	37	방숙자	400	68	오현주 (부제님)	12,000	99	전광수	1,000
7	성모회	5,000	38	배인경	500	69	우성현	1,000	100	정명숙	300
8	Vesta-Oh LLC	5,000	39	백상현	1,500	70	우영인	1,000	101	정진오	1,000
9	강식	1,200	40	백영숙	1,000	71	유병기	3,000	102	조순자	300
10	곽신규	1,000	41	변상민	1,000	72	육순재	5,000	103	조인	1,000
11	곽율리안나	200	42	변상원	1,000	73	윤석로 (부제님)	1,000	104	채희백	5,000
12	김도용	500	43	변태용	4,700	74	윤승현	1,000	105	최경하	1,000
13	김삼식	1,000	44	서경호	1,000	75	윤준희	5,000	106	최영욱	1,000
14	김성일	1,500	45	서정근	1,500	76	이광호	3,000	107	최영찬	2,000
15	김수환	5,000	46	서현주	1,000	77	이기순	500	108	최완준	1,000
16	김순옥	1,000	47	성낙순	500	78	이막동	500	109	최승용 (부제님)	5,000
17	김안나	1,000	48	성낙철	1,000	79	이문식	1,000	110	최진호	1,000
18	김영필	2,000	49	성순영	500	80	이보현	1,000	111	최현지	2,000
19	김정숙	500	50	성준엽	1,000	81	이성문	1,200	112	최골롬바	300
20	김태경	600	51	손경진	300	82	이숙희	500	113	주승호	1,000
21	김진	1,000	52	손영렬	1,000	83	이순분	500	114	토레스 은식	2,000
22	나채국	1,000	53	손영수	1,000	84	이용문	2,000	115	하건철	1,000
23	나한복	1,000	54	손종철	3,000	85	이용범 (신부님)	3,000	116	한상철	1,000
24	문형곤	100	55	손흥구	1,500	86	이재구	1,000	117	한크리스토퍼	1,000
25	민병집	2,400	56	신준호	1,200	87	이재서	1,000	118	허종	1,200
26	박규희	300	57	안을봉	1,000	88	이중권	1,500	119	황분숙	500
27	박기호	1,000	58	안청자	500	89	이준원	100	120	황태진	3,000
28	박덕화	500	59	안현정	1,500	90	이호용	1,000	121	익명 (4)	2,400
29	박동준	300	60	양영길	1,000	91	임문수	500	122	익명	20
30	박락준	2,000	61	염기선	3,000	92	임성주	1,000	123	익명	20
31	박병태	1,200	62	오경숙	3,000	93	임소라	100	124	미국신자 (79)	103,075

약정금액: \$274,486.43/\$300,000 (91.50%) , 납부금액: \$255,014.43/\$300,000 (85.00%)

부활 제 5주일

2026년
5월 3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용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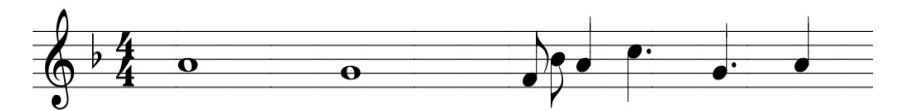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 6,1-7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후렴.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독서 베드로 1서 2,4-9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요한 14,1-12

성가 입당 139 봉헌 220, 511 성체 498, 496 파견 244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김상기(요셉) - 김정희(레지나)
- 김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김유리아나
- 김정자(마리아) - 한크리스토퍼 가족
- 최강섭(요한) -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이스트브런스구역, 주일학교
- 오요한 부제님 - 이스트브런스구역, 씨머셋구역 주일학교
- 장종현(베네딕도) 장한례(데레사) - 씨머셋구역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황혜선(루시아) - 가족
- 김삼식(베드로) - 가족, 김순옥(올리아), 이서형(요안나) 안청자(마리아), 구윤미(올리아)

- 오세실리아 - 가족
- 정윤석(토마스) - 가족
- 신현길(헬레나) - 박두선(요셉)
- 박재영(요아킴) 박인자(안나) 염미라(세실리아) 황선주(요셉피나) 씨머셋 구역 - 주일학교
- 이소희(사라) - 이서형(요안나)
- Jennifer Jones 견진축하 - 주일학교, 김성일(베드로)가족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131 (127명)	2차헌금.....\$496
• 교무금.....\$2,800	
나채국(1~12)	이보현(3) 최진호(1~6)

*** 최승웅(미카엘) 부제와 함께 같이 하는 성서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하고, 6월 26일 부터 다시 시작 되겠습니다. 휴식동안 교우분들께서는 사도행전과 루가복음을 중점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휴연 금지)

*** 원할한 후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후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김정선(스텔라)

*** 2차헌금 (5/3) 2차 헌금이 없습니다.**

*** 빵과 포도주 봉헌**

5/3 장종현 장한례	5/10 백상현 백용숙	5/17 최영옥 진윤식
5/24 유병기 유용희	5/31 박정화 박덕화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5/17 썸머셋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워	9/20 피스브릿지	10/18 노스브런스워
11/15 럽거스	12/20 먼로	1/17 노스에디슨

*** 2026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6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꾸리아 주관으로 미사 전 11:00부터 묵주기도와 부활삼종기도를 바칩니다.**

- 5/3 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 5/10일: 교황님과 모든 사제,부제들을 위하여
- 5/17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 5/24일: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 5/31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 다가오는 어버이날(5월10일)을 맞이하여 미사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의 날(5월10일 주일)에는 미사중에 꽃봉헌(단체/개인), 화관증정, 성모님께 편지, 그리고 묵상글로 봉헌 드립니다.**

*** 오늘(5월3일) 오요한 부제님 서품 기념일 입니다. 성모회에서 케익과 색소폰 동우회에서 특송을 준비 했습니다 모두들 참석 하시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모회 > 테네시 농작물 주문하신 분들은 미사 전후로 픽업해주세요.(담당자: 최레지나)**

*** 복사단회의**
일시/장소: 5월 3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노스 에디슨 구역회**
일시/장소: 5월 3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꾸레아 월례회의**
일시/장소: 5월 10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대회의실)

*** 노스 브런스워 구역회**
일시/장소: 5월 17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대회의실)

*** 올드 브릿지 구역회**
일시/장소: 5월 17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소회의실)

*** <성인 견진성사 예식>**
- 시간: 5월 31일(주일) 미사 중 성인 견진성사
- 견진대상: 세례성사 받고 1년이 경과한 성인
- 견진신청: 신청서 성당입구에 제출
- 필수사항: 주일 미사 5회 참여, 고백성사, 견진교육 참석
- 견진교육: 5월 2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허정(아나스타시아)

*** 제 1독서 사도행전6,1-7**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베드로 1서2,4-9**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요한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 성월>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굽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부활 삼종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주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